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12일 화요일 음 11월 29일 (6월)

기상정보

대체로 흐림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C, 낮 최고기온은 6~8°C로 전망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data for the day,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precipitation probabilities.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moonrise and moonset times, and moon phase information.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 including daily temperature ranges and weather conditions.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weather information, including UV index and visibility.

월드뉴스

중국서 판매하는 유아용 크림 부작용 논란

아기 얼굴 거대하게 부풀어

중국에서 유아용 크림을 바른 생후 5개월 된 유아의 얼굴이 크게 부풀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크림을 바른 생후 5개월 된 유아.

11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에 따르면 중국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피부 크림을 사용한 한 유아의 얼굴이 마치 풍선처럼 붓고 뿔이 많아지는 등 이상 증세가 담긴 동영상 이 퍼지면서 중국 네티즌의 제조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있고 부모는 그동안 써왔던 유아용 피부 크림을 의심하게 됐다.

이 크림의 부모가 이런 내용을 웨이보 등을 통해 공개하자 유아용 크림 강위위원회 황급히 후속 조치에 나섰다.

우선 해당 업체에 문제의 제품을 즉각 회수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확보된 샘플과 포장 재료 등을 국가 기구에 의뢰해 검사하도록 했다.

이 크림을 사용한 유아는 과도하게 체중이 늘고 성장 발달이 지연되는 부작용도 생겼다. 너무 놀란 이 유아의 부모가 병원을 찾아 검사한 결과 성장과 발육을 촉진하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크림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또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킨 뒤 해당 업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나섰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website, and address.

한라칼럼



문만석 사)미래발전전략연구원장·법학박사·독자위원

어른이 사라진 세상

한 해가 시작됐다. 언제나 그렇듯 한 해의 시작은 지난 해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해의 희망과 소원을 비는 일로 시작된다.

는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분해하는 행위인데, 나이는 무엇을 소화시키고 분해하는 것일까. 한 살의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사계절 열두 달의 시간이 담긴 세월의 서사를 받아들여서, 몸 구석구석 시간이 가져온 영양분을 나르고 흡수함으로써 더 깊어지는 나이를 새기는 일이다.

한 해가 시작됐다. 언제나 그렇듯 한 해의 시작은 지난 해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해의 희망과 소원을 비는 일로 시작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전국 일출 명소의 일시적 폐쇄도 새해 첫 일출과 함께 하려는 각자의 욕구를 완전히 제어하지는 못했다.

어른이 사라진 세상이다. 어른이 인격과 교양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판매가 되고, 삶의 지혜와 경험을 전수하는 존재가 아니라 피해야 하는 존재가 됐다. 우리 시대의 어른은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휘두르고 막말을 하는 이미지가 덧칠되고, 과거에 사로잡혀 미래를 외면하는 외골수의 모습으로 각인된다.

게 존경하는 사람을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시대를 대표하는 어른이 존경 받는 사람으로 뽑히기도 하였지만, 아마 존경하는 사람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BTS 등 그 세대의 아이돌 이름이 언급될 것이다.

어른이 사라진 이유는 정보가 여러 경로로 넘쳐나며 영웅 신화가 유지되기 어려운 환경과 아기장수 이야기처럼 영웅 탄생은 원치 않는 사회의 비정함 탓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대 어른의 부재는 시대의 변화 탓이 아니라 어른 자체의 모순과 결함 때문이다.

게하는 목소리를 낸다. 물질만능의 풍도 속에서 편법과 불공정과 차별을 정당화하며 기득권을 누려온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아픈 게 청춘'이라고, '젊은 고생은 사서도 한대'고 입바른 소리를 하는 모습은 또 어떠한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고운 나이를 쌓아가는 일이다. 세월의 경륜을 더하고 인품의 향기를 짙게 하는 일이다. 올 한 해가 나를 채워가는 시간으로, 나의 나이를 굳게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으면 한다.

열린마당

주택행정은 '현장중심 밀착행정'으로



김형도 제주시 주택과장

제주시 주택행정은 연간 3000여건의 주택 인허가와 하자분쟁, 신문고 등 일반민원 400여건의 해결하는 등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직사회 존중·배려가 필요하다



김동한 제주시 행정과장

민원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건축행정서비스'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동주택 분야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정비와 안전을 위한 '부대 복리시설 정비 보조사업', 안전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상설화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 보호를 위한 관리와 3000여 '임대 등록사업자의 효율적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졌고, '개방'보다는 '폐쇄', '자유'보다는 '구속'이 우선되는 분위기다. 공직사회라는 업무 환경에서 동료와 민원인 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행정업무 처리가 원활할 수 없다.

그동안 주택행정은 주택의 물량 공급에 치우친 나머지 유지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담당 직제' 신설,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그리고 공동주택의 재건축 관리 업무의 지속성을 위한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배치'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을 다니며 민원에 대한 불만을 듣노라면 민원인 앞에 면목이 없을 때가 있다. 띄어벌과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며 농사일에 여념 없는 농민들, 공장에서 소음과 먼지와 싸우며 공장일 하는 분들, 양식장 운영에 여념 없는 어민들, 이분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배우자며, 부모·형제·자매이기 때문이다.

단독주택 분야로 기능공을 돕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취약계층의 자연연해 시 신속한 복구를 돕는 '홍수해 보험 사회공헌사업', 친환경적 주거환경 선도의 '곱들락한 집' 공모 선정사업, 취약계층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거급여 사업', 농어촌지역의

이 과정에서도 존중과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다. 미리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지켜야 할 것을 대해 일깨워 줘야 한다. 현장답사 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의무를 최대한, 그리고 쉽게 설명해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와야 할 것이다.

Grand Hearing 2021 New Year Special Event advertisement for hearing aids, featuring a doctor and promotional text.

WIDEX hearing aid advertisement for Jeju Center, highlighting government support and product features.

Jeju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Hearing Aid Plaza advertisement, offering government support and hearing aid services.

Jeju Hallya Farm advertisement for domestic products, including various agricultural goods and farm products.